

자신학화 논의의 배경과 의의

정민영 선교사 (전 위클리프 국제 부대표)

들어가며

자신학화(self-theologizing)란 화두는 선교적 상황화 이슈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상당기간 함의적으로 존재한 이 개념을 명시적 용어로 적시한 사람은 선교학자 히버트(Paul Hiebert)다. 히버트는 자신학화를 선교적 3 자원리(the three-self principle: 자립, 자전, 자치)에 잇대어 제 4 자(the fourth self)로 부른다.¹

역사적-상황적 배경

역사적으로 인류학과 선교는 애증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인류학의 관심은 토착문화의 보존인데, 선교가 개종을 빌미로 문화를 변형시키고 파괴하는 모습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교역사, 특히 식민시대의 선교운동에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토착문화를 파괴하는 사례가 많았고, 그 오류 및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이 상황화 논의를 가속시킨 역설적 요인이 되기도 했다.

복음은 진공이 아닌 구체적 역사와 상황에서 전해지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는 신학과 계시 전달의 상황을 다루는 인문학은 상호배타적일 수 없다. 19세기 말에 부상한 소위 사회복음(the social gospel) 개념에 놀란 일부 복음주의 교계가 인문학을 배제한 신학을 마치 오염되지 않은 순수신학인양 내세우면서 지금까지 지속된 근본주의의 오류와 피해는 이제 모두가 통감하는 바이다.² 사회복음은 특별계시를, 근본주의는

¹ Hiebert, Paul G. 1985. The fourth self. In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193-224. Grand Rapids: Baker. 우리말 역본은 *선교와 문화인류학*이란 제목으로 1996년 처음 출간되었고, 2018년 개정판이 나왔다.

² 역사가 팀 스미스(Timothy Smith)가 '거대 반동(the Great Reversal)'이라 명명한 이 흐름은 지난 백여 년간

일반계시를 배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이분법적 오류를 범한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선교와 인류학이 상호배타적일 수 없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복음의 소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품으신 이유고,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현대교회의 전도와 선교가 소통 아닌 불통으로 치닫는 원인이기도 하다.

선교와 인류학의 교감에 중요한 획을 그은 복음주의 신학자는 1960-1972 년 한국에서 활동한 간하배(Harvey M. Conn) 선교사다. 그가 한국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후 미국 선교학계에서 활동하며 내놓은 명저 *Eternal Word and Changing Worlds* 가 히버트의 공감을 샀는데, 이 책에서 간하배는 건강한 상황화를 위해 선교-인류학-신학 3 자간의 균형잡힌 대화(trialogue)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³ 유사한 맥락에서, 히버트는 선교와 인류학 중 양자택일보다 둘의 통합을 통한 "선교적 소양을 갖춘 인류학, 그리고 인류학적 소양을 갖춘 선교학(a missionally-informed anthropology and an anthropologically-informed missiology)"을 추구했는데, 그의 평생과업은 인류학과 선교와 신학을 적절히 결합시키는("wed") 일이었다.⁴

상황화를 넘어 보편신학으로

교회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신학은 특정 문화나 집단 또는 학파의 관점을 반영하는 지역신학(local theology)인데,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 관점의 보편신학(meta-theology)⁵에 도달하려면 지구촌 해석공동체가 원탁에 둘러앉아 다양한 지역신학들 간의

복음주의 신앙의 이분법적 오류를 낳았고, 1974 년 복음과 선교의 통전성 회복을 지향하며 출범한 로잔운동은 이에 대한 복음주의 교회의 회개와 개혁운동이라 할 수 있다.

³ Conn, Harvey M. 1984. *Eternal Word and Changing Worlds: Theology, Anthropology, and Mission in Triologu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Company. 그는 귀국 후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학 교수로 봉직하면서 *Urban Mission* 이라는 출중한 정기간행물 편집자로 활동했다.

⁴ Cathcart, Rochelle & Nichols, Mike. 2009. Self Theology, Global Theology, and Missional Theology in the Writings of Paul G. Hiebert, *Trinity Journal* 30NS: 209-221.

⁵ 초문화신학(transcultural theology) 또는 글로벌신학(global theology)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활발한 대화와 통합의 여정을 가야 한다.

'상황화를 넘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상황화를 거쳐도 여전히 특정문화에 갇힌 지역신학이므로, 그 차원을 뛰어넘는 초문화적 보편신학의 추구가 필요하다. 둘째, 상황화에 내재된 신학의 주관화 및 혼합주의 위험을 뛰어넘어야 할 숙제가 있다. 절대적 문화상대성(absolute cultural relativism)에 기반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주관주의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이 보편신학의 추구라는 의미다.⁶

간하배 및 히버트와 학문적으로 교류했던 크래프트(Charles Kraft)는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의 동지이자 비판의 대상이었다. 크래프트는 20 세기말 소위 '성령의 제 3 물결'을 주장하며 북미주 복음주의 선교계에 돌풍을 일으킨 뎀버(John Wimber), 와그너(Peter Wagner) 등과 더불어 문화의 상대성에 근거한 종족신학(ethno-theology) 및 종족해석학(ethno-hermeneutics)을 견인하는 지도자였다. 신학과 언어학에 기반한 성경번역 원리에 문화인류학을 접목한 언어학자 나이다(Eugene Nida)와 파이크(Kenneth Pike)의 이론을 다소 편향적으로 적용하고 확대한 크래프트의 주장⁷에 대해 간하배와 히버트는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간하배는 신학보다 인류학 및 인간문화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크래프트의 접근이 자칫 혼합주의로 빠질 뿐 아니라, 문화적 주관성 강조가 객관적 진리(특별계시)를 조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역신학을 보편신학보다 우위에 두는 위험이 있다고

⁶ 글로벌 신학을 겨냥해 지구촌의 다양한 지역신학적 접근과 대화를 시도한 자료로 21 세기 초입에 여러 선교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포럼을 통해 내놓은 책자(Taylor, William D. ed., *Global Missiology for the 21st Century: The Iguassu Dialogu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0)가 본 포럼 논의의 지속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대륙 및 광역 단위의 복음주의 선교학을 폭넓게 다룬 제 4 부(Addressing issues of globalized Evangelical missiology, 257-388 쪽)와 다양한 선교적 도전에 대한 지역신학적 대응 사례들을 다룬 제 5 부(Responding to the challenges, 389-488 쪽)가 본 포럼의 취지와 연계해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높아 보이고, 역사적 교회의 공동체적 영성으로부터 배우는 제 6 부(Listening to mission that rises from community and spirituality, 489-518 쪽)가 지역신학의 한계와 위험을 뛰어넘어 보편적 초문화신학으로 다가갈 본질적 단초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⁷ Kraft, Charles H. 1979. *Christianity in Culture: A Study in Dynamic Biblical Theologiz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Maryknoll: Orbis.

지적했다.⁸ 이 위험성에 대한 해법으로 히버트는 비판적 상황화(critical contextualization)란 개념을 제시했다.⁹ 복음은 선교적 대상의 문화에 적실한 형태로 표현(상황화)되어야 하지만, 타락한 문화는 또한 복음에 의해 교정되고 구속 받아야 한다.¹⁰ 상황화 시도에 내재된 혼합주의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히버트는 성경의 최종권위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지구촌 해석공동체의 견해 청취를 통한 비판적 접근을 제안했다.

자신학화—보편신학을 향한 여정의 첫 걸음

선교적 삼자(three-self) 개념에 잇댄 제 4 자(the fourth self)로서 자신학화 개념은 바로 이런 문맥의 산물인데, 보편신학을 추구하는 여정의 첫 단계가 주체적 지역신학의 형성인 셈이다. 19 세기말 한반도 선교에 적용된 이래 현대선교에서도 자주 회자되는 삼자원리는 원래 복음의 토착화를 위한 선결요건으로 제시된 것인데, 히버트는 토착교회의 진정한 홀로서기가 가능하려면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보았다. 세 가지 조건(자립, 자전, 자치)이 충족되었다 해도 서구의 문화와 상황에서 형성된 외래신학을 단순히 베끼는 것으로는 토착공동체 차원에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 뿐더러, 원탁대화에서 독특한 지역신학을 대변하며 보편신학에 공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¹¹

개신교 선교운동이 본격화된 19 세기의 신민팽창적이고 일방통행적인 선교 패러다임으로 인해 많은 선교현장에서 자신학화 과정이 원천봉쇄되었다. 서구신학을 완성된

⁸ Cathcart & Nachols, 215.

⁹ Hiebert, Paul G. 1984. Critical contextualizatio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12/3 (July): 261-353.

¹⁰ 이 개념을 교회역사가 앤드류 월즈는 복음이 '문화의 포로이자 해방자'라는 표현으로 정리했다. Walls, Andrew F. 1996 "The Gospel as Prisoner and Liberator of Culture." In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Studies in the Transmission of Faith*, 3-15. Maryknoll: Orbis.

¹¹ 2002 년, 역사종교학자 Philip Jenkins 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책 *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 를 쓰게 된 배경은 비서구(global south) 교회가 단순히 규모 면에서 서구(global north) 교회를 앞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교회의 미래를 규정하고 영향력을 발휘할만한 잠재력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수정보완한 제 3 판이 2011 년 출간됐고, 우리말 역서(*신의 미래: 종교는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는 2009 년 소개됐다.

보편신학으로 오해했고, 그 완제품을 온 세계에 확산하는 일을 선교의 과업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간헐적으로 토착교회의 주변부에서 소수의 의식있는 선구자들을 통한 자신학화 추구가 있었으나, 해석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자신학화 과업의 본질상 그런 노력이 제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그 결과, "세계교회(global church)가 손잡고 세계선교(global mission)를 감당하자"라는 멋진 구호들이 넘쳐나는 21 세기에도 진정한 원탁대화가 태부족인 안타까운 현실을 초래했다.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가진 독특한 형태의 유리조각들이 모여 모자이크를 완성하듯, 지구촌 곳곳의 토착 신앙공동체들이 기존 외래신학을 베끼지 않고 자신들이 처한 독특한 상황과 문화 안에서 자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고민하여 해산한 다양한 지역신학들이 아우러질 때 비로소 보편신학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정은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이지만,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이해되는 상황은 상대적이다. 따라서 절대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피전달자의 상황과 문화에 적실한 형태로 제시되고 소화되어야만 한다. 한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절대진리와 그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 특정 시대와 상황 속에서 인간이 체계화한 지역신학을 구분해야 한다. 계시된 진리의 객관성과 감지된 진리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특정 신학 및 제도종교(주관성)를 절대진리(객관성)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¹² 앞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다양한 지역신학들의 선교적 원탁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궁극적 보편신학을 겨냥한 원탁대화가 가능하기 위한 선결요건은, 선교사 파송국이든 피선교지든 차별없이 다양한 지역과 문화의 신앙공동체에게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와 자율성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토착교회에 대한 존중은 원탁에 둘러앉은 다양한 지체들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진지한 대화와 동역을 가능케 한다. 파트너십이란 일방통행적 갑질이나 경쟁이 아니라,

¹² 모든 시대의 신학과 제도교회는 자신을 완제품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나 지금이나 자기중심적 배타성이 지구촌 해석공동체의 원탁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We have to admit that there is an immeasurable distance between all that we read in the Bible and the practice of the Church and of Christians." (Ellul, Jacques. 1986. *The Subversion of Christianity*.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7)

한 몸(교회)을 이루는 지체들의 유기적, 수평적, 이타적 연합이기 때문이다. 토착교회의 자신학화를 배제하고 기존신학을 강요하는 것도 잘못이지만,¹³ 토착공동체 스스로 자신학화 과제를 거부하고 외부자의 선교에만 기대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의존이다.

나가며

이상의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솔직하고 진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주적 교회(the universal church)의 유기적 지체로서, 한국교회의 진정성은 외형적 규모에 있지 않고 그간 우리 몫의 자신학화 숙제를 제대로 감당했는지 여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두 세기 전 천주교가 소개되고 백여 년 전 개신교가 전래된 이래 간헐적 자신학화 노력이 주변부에서 있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만,¹⁴ 한반도 신앙공동체 차원에서 이 중요한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아울러, 뒤늦게나마 우리 몫의 자신학화 이슈와 밀린 과제를 점검하고 대처하는 게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가 2 만 명을 훌쩍 넘긴 게 한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자신학화 관점에서는 두려운 일이다. 과거 식민 패러다임의 서구선교가 토착교회의 자신학화를 방해했듯, 자신학화 경험이 부족한 한국선교가 토착교회의 자신학화를 가로막을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본 포럼의 작은 노력이 한국교회와 선교운동의 건강한 미래에 공헌하게 되기 바란다.

<토론 질문>

1. 자신학화 개념을 자신의 말로 정의해보고, 그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¹³ 영국의 고전적 선교전략가 롤란드 알렌(Roland Allen)은 토착교회의 자결권을 가로막는 역할을 의외로 선교사들이 자주 범한다고 관찰한 바 있다.

¹⁴ 한국교회의 자신학화 사례들을 추적해서 학습하고 자료화하는 작업이 향후 본 포럼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2. 이 글에 나오는 여러 개념들(상황화, 문화상대주의, 혼합주의, 비판적 상황화, 지역신학, 보편신학, 3자-4자원리 등)이 자신학화 개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해 보시오.